

2019년 3월 13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나스닥,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지속

알파벳 +1.53%, 애플 +1.12%, 아마존 +0.15%, MS +0.70%

미 증시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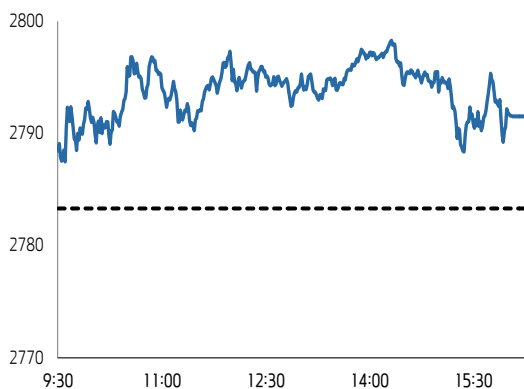
미 증시는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발언으로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과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자 상승. 다만, 보잉(-6.15%) 사태로 다우지수는 하락. 한편, 영·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영국 의회가 부결했으나 영향은 크지 않음(다우 -0.38%, 나스닥 +0.44%, S&P500 +0.30%, 러셀 2000 +0.06%)

다우지수 구성 종목인 보잉이 '보잉 737 맥스' 기종 운항 중단 결정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일에 이어 급락. 이는 다우지수의 하락을 야기.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과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에 힘입어 미 증시는 강세를 이어감. 지난 주말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중국과 매일 접촉하고 있다" 라고 주장한 데 이어 오늘은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상원에 출석해 "월요일에 이어 수요일에도 중국과 대화가 예정되어 있다" 라고 언급. 전일에는 미국과 중국은 추가 협상 일정을 결정 했다고 발표해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이 높아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발표한 이후 민주당과의 마찰이 격화되고 있었음. 이는 향후 하원과 협력해 대규모 인프라투자 등 미국 경제 발전 속도를 높여야 되는 트럼프에게는 부담.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강력한 증거가 없이는 국가를 분열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없을 것" 이라고 언급. 민주당 의원 일부가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트럼프와 민주당의 마찰이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

영국의회는 메이총리와 EU 간의 합의안에 대해 242:391 로 부결하자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을 뿐 영향력은 크지 않음. 합의안 부결로 영국 의회는 13 일 노딜브렉시트 14 일 브렉시트 연장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57.18	+0.89	홍콩항셱	28,920.87	+1.46
KOSDAQ	754.76	+2.12	영국	7,151.15	+0.29
DOW	25,554.66	-0.38	독일	11,524.17	-0.17
NASDAQ	7,591.03	+0.44	프랑스	5,270.25	+0.08
S&P 500	2,791.52	+0.30	스페인	9,161.70	-0.11
상하이종합	3,060.31	+1.10	그리스	703.91	+1.06
일본	21,503.69	+1.79	이탈리아	20,631.19	-0.0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기술주 강세 지속

애플(+1.12%) 전일에 이어 오늘도 상승 했다. 전일 장 마감을 앞두고 애플이 3월 25일 TV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 했었는데 관련 이슈가 오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무료로 서비스한다는 점에서 넷플릭스(-0.72%) 등은 부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일 NVIDIA(+0.86%)의 M&A를 통해 데이터 서버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알파벳(+1.53%), 아마존(+0.15%), MS(+0.70%)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더불어 마이크론(+0.56%), 인텔(+0.41%) 등 반도체 업종도 강세를 이어갔다.

반면, 보잉(-6.15%)은 보잉 737맥스 사용 중단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세를 이어갔다. 유나이티드테크(-1.06%) 등 항공기 부품회사들도 동반 하락 했다. JP모건(-3.00%), 웰스파고(-0.22%) 등 금융주는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 국채금리가 하락한 여파로 부진했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회사인 F5네트웍스(-7.67%)는 실적 부진 우려로 투자이견 하향 조정 여파로 부진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37%	대형 가치주 ETF(IVE)	+0.35%
에너지섹터 ETF(OIH)	+1.63%	중형 가치주 ETF(IWS)	+0.37%
소매업체 ETF(XRT)	+0.27%	소형 가치주 ETF(IWN)	0.00%
금융섹터 ETF(XLF)	+0.23%	대형 성장주 ETF(VUG)	+0.35%
기술섹터 ETF(XLK)	+0.59%	중형 성장주 ETF(IWP)	+0.35%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25%	소형 성장주 ETF(IWO)	+0.14%
인터넷업체 ETF(FDN)	+0.31%	배당주 ETF(DVY)	+0.34%
리츠업체 ETF(XLRE)	+0.54%	신흥국 고배당 ETF(DEM)	+0.25%
주택건설업체 ETF(XHB)	+0.13%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2%
바이오섹터 ETF(IBB)	+0.82%	미국 국채 ETF(IEF)	+0.28%
헬스케어 ETF(XLV)	+0.73%	하이일드 ETF(JNK)	+0.20%
곡물 ETF(DBA)	+0.55%	물가연동채 ETF(TIP)	+0.19%
반도체 ETF(SMH)	+0.49%	Long/short ETF(BTAL)	-0.3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79.75	+0.58%	-1.71%	+2.96%
소재	347.59	+0.33%	+1.25%	+5.04%
산업재	622.34	-0.91%	-1.80%	+0.77%
경기소비재	867.86	+0.23%	-0.85%	+2.70%
필수소비재	561.99	-0.02%	+0.76%	+1.48%
헬스케어	1,051.32	+0.67%	-0.69%	+1.18%
금융	434.77	+0.18%	-0.62%	+1.92%
IT	1,255.07	+0.52%	+1.17%	+5.39%
커뮤니케이션	158.77	+0.56%	+1.53%	+5.30%
유틸리티	294.00	+0.62%	+2.02%	+4.20%
부동산	219.79	+0.47%	+1.80%	+2.2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변동성 확대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7% MSCI 신흥 지수 ETF 도 0.52%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234 계약)에도 불구하고 0.25pt 하락한 277.7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7.3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비록 보잉 사태로 다우가 하락 했으나, 기술주가 강세를 이어가며 나스닥은 상승했다. 특히 데이터 서버 산업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전일에 이어 오늘도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한 점이 특징이었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인플레이 압력 완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미국 정치 불확실성 완화 등은 위험자산 선호심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중국 증시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차익실현 매물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더불어 영국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부결 처리하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된 점 또한 부담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차익매물이 출회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물가상승압력 완화

2 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로는 1.5% 상승 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쳐 예상치(mom +0.2%)를 하회했다. 전년 대비로도 2.1% 상승해 예상치(yoy +2.2%)를 하회해 물가상승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2 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는 전월(101.2) 보다는 높은 101.7 로 발표되었으나, 예상치(102.5) 보다는 부진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파운드화 달러 대비 약세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및 정전으로 인한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량 감소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한편, EIA 가 단기에너지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2019 년 원유 생산량을 하루 1230 만 배럴로 전망 했으며, 이는 지난 2 월 전망치 보다 0.9% 감소한 수치였다. 이러한 미국의 생산량 감소 기대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장 후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달러화는 미국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된 영향을 받아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한편, 파운드화는 영국 법무장관이 메이총리와 EU 간의 합의안도 여전히 법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자 달러 대비 하락 했다. 그러나 영국 의회는 표결에서 242:391 표로 합의안을 부결 했으나, 관련 내용은 알려져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달러 대비 약세폭이 축소되기도 하는 등 변화는 제한 되었다.

국채금리는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된 영향으로 하락 했다. 더불어 10 년물 국채금리 입찰에서 응찰율이 12 개월 평균(2.50 배)를 상회한 2.59 배를 기록하는 등 수요 증가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74%, 철근도 0.95% 상승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6.87	+0.14	+0.55	Dollar Index	96.954	-0.27	+0.09
브렌트유	66.67	+0.14	+1.23	EUR/USD	1.1295	+0.44	-0.11
금	1,298.10	+0.54	+1.04	USD/JPY	111.29	+0.07	-0.54
은	15.413	+0.91	+2.04	GBP/USD	1.3059	-0.69	-0.90
알루미늄	1,873.00	+1.41	-0.05	USD/CHF	1.0071	-0.35	+0.30
전기동	6,472.00	+1.01	-0.09	AUD/USD	0.7082	+0.17	-0.03
아연	2,838.00	+3.65	+2.09	USD/CAD	1.3356	-0.28	+0.04
옥수수	365.75	+1.04	-2.66	USD/BRL	3.8138	-0.70	+0.95
밀	453.00	+5.72	-2.11	USD/CNH	6.7073	-0.37	+0.03
대두	897.00	+0.79	-1.83	USD/KRW	1129.80	-0.34	+0.38
커피	96.00	-1.23	-3.66	USD/KRW NDF1M	1127.35	-0.34	+0.21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598	-4.14	-11.90	스페인	1.166	+1.50	+1.50
한국	1.985	-0.30	-4.20	포르투갈	1.332	+1.80	-12.30
일본	-0.028	+0.50	-3.80	그리스	3.871	+16.90	+17.60
독일	0.055	-1.40	-11.30	이탈리아	2.537	-2.10	-16.80